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5호 [루게 제24658호] 주제 103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서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1일에 진행되었다.

인민부력부장인 조선인민군 특근대장 현영철동지와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서 일군들,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10월 8일 공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신 감사말씀을 현영철동지가 전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새로 일떠서 10월 8일 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을 우리 나라 산업시설을 담당할 대표할 수 있는 공장, 지식경제시대와 사회

주의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공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공장으로 전변시키는데 이바지한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은정어린 감사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공장건설을 통하여 군민대단결의 위력이며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었다고 하시면서 공로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령도업적에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이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설 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하에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인들과 일군들, 종업원들이 받아안은 당의 믿음과 사랑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분발할데 대하여 말씀하였다.

최현일, 10월 8일 공장 직장장 박신숙이 결의로문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안겨주신 크나큰 영광과 가슴에 새기고 혁명적군인정신, 군인본래, 군인기질로 조선속도창조의 불바탕을 세차게 일으키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려이여 창조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일러 모신 공지를 안고 제품생산의 량과 질을 최대한 높이며 공장의 안팎을 자기 집처럼 알뜰히 거두고 깨끗이 관리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군인건설자들과 공장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강조국건설에 참가해 이바지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

##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는 이북

### 남조선 언론계가 주장

남조선언론계가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에 경탄을 표시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소식에 초점을 모으며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요인터 네트신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들 640여 장을 모시고 그의 혁명활동관련기사 650여 편을 실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마시평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셨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풍문술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공공공장,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통해 현대화와 과학화, 집약화를 강조하시였을뿐 아니라 과학자육양소건설장,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한 건설장들도 찾으시고 새로운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KBS》방송은 《북이 경제강국건설을 위해 조선속도라는 새로운 대추적인 구호를 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이룩해가고있는 공화국의 자랑한 현실에 대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동일뉴스》 등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로 개 건된 경기총관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돌아보신데 대해 주목하면서 우는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놓으셨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경제강국, 건설에서 눈부신 비약을 안아오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북이 주인들이 즐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 문화시설건설에 집중하고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양시설건설로 사회주의 문명 국가의 체모를

갖추어나가고있는 이북》이라고 평하였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은원수 평양시민들과 축구경기 관람》, 《김정은시대 북에 스포츠 열풍》 등의 제목아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체육선수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전문선수단의 훈련과 대중체육경기들을 자주 보아주시셨을뿐 아니라 평양에서 진행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 및 구락부경기선수권대회도 보아주시는 등 체육관련공개 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김정은제1위인장의 체육성장방문은 체육을 통해 주체체육을 강화하고 국제대회에서는 국가의 명성을 떨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려는 의도》, 《체육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집단주의를 배양시키려 하고있다.》고 평하면서 이 북사회에 체육열풍이 일어나고 금메달도 늘어나고있다고 언론들은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을 강성국가건설의 원동력으로 보시고 그의 발전에 불멸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흠모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에서 특장적인것은 과학기술발전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신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제1위인장께서 내세우시는 대표적인 분야가 과학기술이다.》, 《북이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북의 과학중시정책에 따라 과학자는 북청소년들이 가장 신망하는 직업으로 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보수언론들까지도 《이북 전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게 된것은 김정은제1위인장의 혁명적인 현지지도때문일것이다.》고 하였다.

언론계를 휩쓰는 절세위인에 대한 흠모열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라는 남평계의 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며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펼쳐나신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일떠마다에서 자랑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해당 성들의 지도부에 도안의 농업부문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알곡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전력, 석탄, 화학,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전진회의와 부문별회의를 열고 인민경제의 주요단위들에서 년초에 세웠던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이와 함께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모두가 혁명의 지휘성

평안남도에서

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농촌들과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추진성기 일군들처럼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앞장에서 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는 선진선봉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으면서 령도를 집중하여 중요대상공사들을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 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은 서해곡창지대를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농작물 수확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령도를 집중하도록 하고있다.

순천시, 양덕군, 북창군, 문덕군, 증산군, 안주시를 비롯한 시, 군의 농업부문 일군들은 거름더미이자 썰미더미라는것을 길이 자각하고 거름생산을 다그치면서 가을이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작전과 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콜매기전투를 힘있게 벌려 산과 강변을 비롯한 풀원천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은 풀을 베어들어 거름더미를 높이 쌓은 도의 농업근로자들은 신심드높이 가을이준비에 떨쳐나섰다.

도안의 석탄, 전력, 화학,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군들은 평안남도에서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생산이라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탄광들의 기세개건을 다그쳐 석탄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도록 하고있다.

순천, 덕천, 개천, 북창, 득장지구의 탄광들에서는 굴진속도를 확고히 앞세워 유망한 새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석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 있다. 모든 탄광연합기업소들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기세좋게 내달리고 있다.

특히 남양탄광,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 무진대청년탄광 등에서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힘있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은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청천강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들에 나가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전력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전소들에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남창정제화학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농업업소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시비전도 화학비료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여 생산을 다그치면서 설비보수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남양제염소, 은정제염소에서 이바지하여 생산을 다그치면서 설비보수전투를 힘있게 벌려 계획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생산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 이동식벼탈곡기생산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황해남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이준비를 앞두고 농촌들은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현재 도에서 생산하고있는 이동식벼탈곡기는 벼탈곡은 물론 정선까지 동시에 하게 될 수를 가진 농기이다.

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동식벼탈곡기를 제1일내에 생산하여 가을이준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특히 도에서는 강제와 목제를 비롯한 필요한 자재를 앞세워 보장하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계획된대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도안의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를 비롯한 농기계생산단위와 수리기지들이 이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황해남도에서

그 일정에 배편군이 섰다. 배편군에서는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북에서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할수 있게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부를 조직한데 이어 제관공, 용접공, 선반공 등 기술자, 기술공들로 강력한 기술력량을 무어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원사업에 고무된 생산자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40여대의 이동식벼탈곡기를 질적으로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천, 제명, 대천, 송화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자체를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에 앞세워 보장해주고 노력과 기술력량을 동원하여 계획된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마감고 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이 아닌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들에서도 이동식벼탈곡기생산전투가 힘있게 벌려 벼탈곡기를 개조하는 사업에도 상당한 힘을 넣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가을이준비가 착실하게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산보장하기 위해 농기계생산단위들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조경보장을 해세우도록 하는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에서도 지방자재를 적극 리용하여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다그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두고있다.

대성협동농장이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 농장에서는 오랜 기술공들과 자체의 튼튼한 수리기지에 의하여 이동식벼탈곡기를 생산하도록 작전을 잘해나가고 있다. 가을이준에서 탈곡기생산을 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농장의 기술공들은 창조적체와 힘을 합쳐 계획된 이동식벼탈곡기를 제1일내에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월현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다른 협동농장 기계제작반과 수리분조들에서도 지역적생의 정진력을 높이 발휘하여 이동식벼탈곡기생산을 다그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새로운 농촌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기름 펌프양수기를 설치한 지구들에서는 자연흐름식으로 살림잡고 질질승우리다. 수도 시설을 실행하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수심계 지구들에서는 펌프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수찾기가 진행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따라 공장, 기업소들을 끊임없이 기술개조하여 현대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나라의 위력한 유색 금속생산기지인 단천 제련소에서 기술개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제련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치있는 새 기술들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소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즐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최근 3년동안에만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 창조적체와 힘을 합쳐 14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산화아연생산 공정과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 공정, 조액공정을 현대화하고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풀기 위한

단천 제련소에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제 98(2009)년 6월 물소 단천제련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술을 꿰임없이 혁신하여 생산장치의 확고한 물과자를 열어놓은 단천제련소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제련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제련소현대화를 위한 높은 방법론을 찾아내고 기술발전사업을 통해 크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당위원장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제련소당위원회에서는 당의 기술혁명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리상수, 박춘선동무를 비롯한 제련소의 일군들은 기술발전을 위한 전망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기술자, 로동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펼쳐나선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 격대원들이 바람을 리용하여 지하시와 저류시, 강하천의 물을 어디에서나 퍼올릴수 있는 풍력양수기를 만들어 새로 건설한 마을과 집집승우리, 먹이물관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하여 물원천이 없는 어디에서나 전력을 쓰지 않고도 방목공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집집승우리, 먹이물관에 필요한 물을 물론 관개용수도 정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중앙현지지휘부에서는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와의 적극적인 연계밑에 바람이 잦은 기상기후조건을 리용하여 새로 건설된 축산기지들

## 풍력을 리용하여 양수도 한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수도 시간당 평균 3m<sup>3</sup>를 퍼올린다고 한다.

또한 전기선,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뿔작업을 위한 전동기와 전기식펌프를 쓰지 않고 양수에 필요한 전기를 7000kW의 전기를 절약할수 있다고 한다.

중앙현지지휘부에서는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들격대와의 적극적인 연계밑에 바람이 잦은 기상기후조건을 리용하여 새로 건설된 축산기지들

성공적인 첫 시운전에서 신심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들 격대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풍력양수기를 제작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기름 펌프양수기를 설치한 지구들에서는 자연흐름식으로 살림잡고 질질승우리다. 수도 시설을 실행하기 위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수심계 지구들에서는 펌프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수찾기가 진행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있는 원료와 연료, 동력자원을 다 개발리용하면 어떤 경제체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풍력양수기는 풍차와 펌프로 되어있고 시동바람속도는 3m/s이다. 풍력양수기는 풍차의 끝은 축에 연결된 크랭크에 의하여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으로 전환되면서 펌프의 피스톤을 아래위로 가동시켜 물을 퍼올린다.

풍력양수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과 보수비용이 적게 들면서 10m이상의 길이











# 승고한 동지애의 력사, 사랑의 세계

동지애의 위대한 력사를 아로새기며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통에도 그리던 따사로운 태양의 품, 어머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체 89 (2000)년 9월 2일,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10여년세월 위대한 사랑을 짓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 한 삶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이 아침 동지애의 화신인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감개 드리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를 사람에 예레기 기다리던 가족들도 살아 만날 생각을 오래전에 단념해 버리게 했다.

하지만 망각속에 묻힌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어 잠 못 이루시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시신은 바로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슴아픈 소식을 들으시고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의 구절 구절을...

『전사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더 생동하게 새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34년동안이나 남조선의 철창속에서 고생하던 리인도 농사를 짓지 않고 지난해에 기어오르려왔다. 이렇게 하는것이 전사들에 대한 참된 영도자의 의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하고있다. 우리 당이 있는 한 남조선에서 고통받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모두 따뜻한 품으로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

혁명승리를 위한 투쟁한 신념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다.

통일애국투사들을 당의 품으로 데려 오기 위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것만 해도 무려 수십차, 1994년 3월 24일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비상실기구인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조직, 비전향장기수문제가 20세기 최대의 인권 문제, 인도의적분과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한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강력한 조치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어떤 말로나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로고와 심혈의 귀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며칠전인 주체 89 (2000)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화제를 비전향장기수문제로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참으로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셨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이 뜨거워움을 감출수 없었다.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자의 본분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어머니 장군님, 어느 시대에 이런 영도자, 위인이 있었던가. 그의 말씀을 새겨안는 일군들은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주체 89 (2000)년 9월 2일 고향에도 안기고싶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환포에 안기우고 그들을 위해 기울인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은정과 배려를 또 얼마나 만사인의 심장을 울리고있는 것인가.

생생한 걸을 헤치시며 뒹고 힘찬 철령을 다녀오신 그분에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로해하시고 수습까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희귀한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시고 목까지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삼복철이건 몸보신에 좋다는 당근기도 대접 하시고 그 눈으로 겨울이면 름바리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은정, 조국에서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신

친어머님의 보살핌... 친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어머니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이 되어 그들은 잃어버린 청춘과 행복을 모두 되찾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자로 만복을 누리고있는것이였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남조선의 감옥에서 얻은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 한 애국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한없이 뜨거운 은정이였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울고웃던 잊지 못할 날들에 대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은 격정에 넘쳐 흐느끼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마를줄 모르는 삶의 생영사, 사랑의 젖줄과 대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승고한 동지애의 력사, 사랑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분을 그대로 되신 신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계속 이어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날을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컸을 나날을 누구보다 뜨거운 동지애의 사랑, 한량없는 은정을 기나긴 옥중투쟁의 나날 원수들의 모진 고문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역센 사나이들의 눈물을 려지게 했다.

선군혁명영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잊지 않으시는데 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언제나 통일애국투사들을 생각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였다.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향에도 조선작동맹 맹원으로서 창작활동을 정열에 넘쳐 벌이고 사회진보회, 국가미술 전람회 등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대로 통일애국투사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회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그분들의 고매한 친분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런 희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름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정은원수님 태생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

남겨레는 혁명영도의 전기 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령의 정치를 펼치시어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고 조국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일성주석께서 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고 하면서 북에서는 이날을 청년절로 정하고 해마다 뜻깊게 정속하고있다고 전하였다.

2.16동지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의 창설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현명하게 영도하시여 민족사에 불멸의 장을 새기시였다. 오늘 이복청년들이 모두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땅 어깨에 떠메고나가는 나라의 대들보로 자라나고있는것은 다 주석께서 생애에 청년문제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청년운동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어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결과이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인터넷 트럼페지에 《공청사업을 개진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교섭에 대하여》, 《조선청년맹을 조직할데 대하여》,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운동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수십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게재하였다.

에 국청년들 회 회장 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일찍이 청년운동은 본질에서 수령이 개척한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는 운동이라는 데 대해 밝히시고 청년조직을 김일성주석의 청년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오신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물려가게 이어주시는것을 확신을 심장깊이 새겨안고있다.

한 재야인사는 지금 온 세계가 김정은원수님대통령을 높이 모신 북을 우러러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께서 계시어 북에서는 청년들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게 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장창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 2012년 청년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전폭적인 청년중시정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남조선 언론들은 김정은원수님대통령께서 2012년 청년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철하게 통찰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전폭적인 청년중시정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신다고 칭송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인터넷 트럼페지에 《공청사업을 개진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교섭에 대하여》, 《조선청년맹을 조직할데 대하여》,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운동과 관련하여 발표하신 수십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게재하였다.

에 국청년들 회 회장 은

가혹행위=자살이라는 갈기식이 성립되고있다는 행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 언론은 남조선피괴군을 《죽음의 상징》으로까지 표현하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에서는 피괴군피괴행사가 날로 더욱 우세해지고있다.

현실이 이리하여도 불구하고 피괴군장부 장관 한민구와 같은 전쟁범죄자들은 《용성》이, 《전쟁범죄》하고 불법적이 날뛰면서 피괴군을 동족대결의 사냥개로 더욱 사냥개 길들이고 발광하고있다. 하지만 용성이 규범에 의해서 유지되고 살인과 폭행이 만무하는 미국의 식민주의 공룡군,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야말로 가소로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탈방에 갇혀대듯이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씩씩대로 씩씩은 피괴군의 현실에나 들어키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0여년세월 위대한 사랑을 짓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이 아침 동지애의 화신인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감개 드리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0여년세월 위대한 사랑을 짓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이 아침 동지애의 화신인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감개 드리고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이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고있습니다.』

혁명승리를 위한 투쟁한 신념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다.

통일애국투사들을 당의 품으로 데려 오기 위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것만 해도 무려 수십차, 1994년 3월 24일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비상실기구인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조직, 비전향장기수문제가 20세기 최대의 인권 문제, 인도의적분과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한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강력한 조치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어떤 말로나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로고와 심혈의 귀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승리를 위한 투쟁한 신념을 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온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다.

통일애국투사들을 당의 품으로 데려 오기 위해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것만 해도 무려 수십차, 1994년 3월 24일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비상실기구인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조직, 비전향장기수문제가 20세기 최대의 인권 문제, 인도의적분과 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한 국가적인 규모에서의 강력한 조치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을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하여 기울여오신 그 어떤 말로나 글로도 다 표현할수 없는 로고와 심혈의 귀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기 며칠전인 주체 89 (2000)년 8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화제를 비전향장기수문제로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감옥에서 수십년동안이나 용감하게 투쟁한 그들은 모두 애국자, 혁명가라고 참으로 고귀한 칭호로 불러주셨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이제 조국의 품에 안기면 조국통일상도 수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도, 새 당원증도 안겨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가슴이 뜨거워움을 감출수 없었다. 혁명전사들의 삶과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하는 자의 본분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어머니 장군님, 어느 시대에 이런 영도자, 위인이 있었던가. 그의 말씀을 새겨안는 일군들은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에 떠받들려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은 주체 89 (2000)년 9월 2일 고향에도 안기고싶던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온 비전향장기수들을 따사로운 사랑의 환포에 안기우고 그들을 위해 기울인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은정과 배려를 또 얼마나 만사인의 심장을 울리고있는 것인가.

생생한 걸을 헤치시며 뒹고 힘찬 철령을 다녀오신 그분에도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로해하시고 수습까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희귀한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시고 목까지 보내주신 다심한 사랑, 삼복철이건 몸보신에 좋다는 당근기도 대접 하시고 그 눈으로 겨울이면 름바리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은정, 조국에서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을 보내주신

친어머님의 보살핌... 친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어머니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귀중한 보약, 사랑의 불사약이 되어 그들은 잃어버린 청춘과 행복을 모두 되찾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자로 만복을 누리고있는것이였다.

어찌 이뿐이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남조선의 감옥에서 얻은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이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 한 애국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한없이 뜨거운 은정이였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울고웃던 잊지 못할 날들에 대하여 비전향장기수들은 격정에 넘쳐 흐느끼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마를줄 모르는 삶의 생영사, 사랑의 젖줄과 대한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승고한 동지애의 력사, 사랑의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분을 그대로 되신 신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계속 이어지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날을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컸을 나날을 누구보다 뜨거운 동지애의 사랑, 한량없는 은정을 기나긴 옥중투쟁의 나날 원수들의 모진 고문속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역센 사나이들의 눈물을 려지게 했다.

선군혁명영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잊지 않으시는데 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언제나 통일애국투사들을 생각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였다.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향에도 조선작동맹 맹원으로서 창작활동을 정열에 넘쳐 벌이고 사회진보회, 국가미술 전람회 등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대로 통일애국투사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회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그분들의 고매한 친분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런 희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름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정은원수님 태생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잊지 않으시는데 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언제나 통일애국투사들을 생각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였다.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향에도 조선작동맹 맹원으로서 창작활동을 정열에 넘쳐 벌이고 사회진보회, 국가미술 전람회 등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대로 통일애국투사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회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그분들의 고매한 친분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런 희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름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정은원수님 태생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생일을 맞을 때면 잊지 않으시는데 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다. 언제나 통일애국투사들을 생각하시는 그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 60돐 경축행사에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였다.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이 고향에도 조선작동맹 맹원으로서 창작활동을 정열에 넘쳐 벌이고 사회진보회, 국가미술 전람회 등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업에 헌신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 사랑대로 통일애국투사들을 한없이 귀중히 여기고 삶을 빛내여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대를 두고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들 사이의 사랑과 총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계는 일찍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동지애의 력사, 인민사회의 세계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그분들의 고매한 친분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자랑스런 희곡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름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영광중의 영광이고 행운중의 최대의 행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정은원수님 태생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그의 승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세월》호특별법제정을 요구하여 투쟁

남조선의 《세월》호참사유가족들과 각계 중층의 참가하에 8월 23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 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집회 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할데 대한 민중의 목소리에 청외대가 응답해나서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야당대표가 《세월》호참사진상규명문제를 관련하여 여당과 집권자를 설득시킬 대신 유가족과 민중을 리해시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유가족들만이 아니라 민중 모두의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로동자, 청년학생, 종교인들 비롯한 각계각층이 특별법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확대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러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이 집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정

파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인 승철은 민중의 안전과 생명에 보장은 없는 상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목적은 유가족들의 요구대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참사특별법제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민주로총 대표들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통성장을 찾아 그들을 격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오합지졸의 무리, 《죽음의 상징》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유일병폭행사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공포를 일으키는 가운데 피괴군내에서의 자살, 폭행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유일병폭행사당사자가 발생한 한 피괴 28사단에서 최근 사병 2명만이 자살하였다. 그들은 시내에 외출한 기회에 피괴군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웠고 한 상병을 연행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날에는 피괴 3군사령부직속 공병부대 사병에게 한 사병이 총으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살 사건만이 아니다.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경기도 포천의 어느 한 피괴군부대에서는 한 상병이 후각을 잃는 병을 앓고있었다. 남조선장기수들이 자살한 것은 자살 사건만이 아니라, 사병들에 대한 가혹행위들도 계속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는 망동

열마일 남조선을 행한 미국방성 부장 로버트 위크가 판에 박은 미국의 《위협》설을 운운하였다. 그는 우리의 《도발》가능성이 크나쁘니, 저들이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무시하고있다는 소리 하는 제언을 늘어놓았다. 이어 그는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막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와 남조선형미사일방위체계의 완벽한 상호운용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그야말로 파멸적인 주장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말인가. 미국의 주장은 흑백을 전도하는 강도의 소리이다.

원래 굳이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에 대고 소리이다. 술한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배치해놓고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우리에게 대한 실제공격기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는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이 떠돌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객관적현실을 외면하면서 고의적으로 사태를 무너뜨리고 있다. 속신은 면이 없다.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기정사실화하여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것이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고 피괴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굴복하여 남조선피괴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구성에 핵심요소로 되고있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군부가 직접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를 남조선에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조사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자 남조선은 물론 주변나라들에서 물의가 일어나고있다. 남조선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도입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균형을 파괴하고 제약을 초래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괴당국을 비난하고있다. 주변나라들도 남조선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면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초래된다고 하면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바빠난 남조선피괴들은 저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입한다는것은 사실이 아니며 미국과 그 어떤 협의도 한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에는 단처한 처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피괴들에게 입김을 불어넣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설이다. 미국은 파멸적하게도 우리의 있지도 않는 《미사일위협》을 걸고들면서 어떻게 하나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고 엄청난 재정적부담을 걸머지기를 기도하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꾀변이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의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해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설을 들고 나오는것은 언언도단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명백히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주변대국들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산물이다.

세계를 제